

2014

연구보고서-3

I S S U E P A P E R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의 가족생활 지원 방안

수행과제명 •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의 가족생활 현황과 지원방안 연구
과제책임자 • 최인희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의 가족생활 지원 방안*

수행과제명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의 가족생활 현황과 지원방안 연구

과제책임자  최인희 연구위원

 Tel: 02-3156-7105

 e-mail: inhchoi@kwdimail.re.kr

I 요약

고령화의 진전 및 가족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노년기 생활이 부부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나 중장년 및 노년기 부부관계 만족도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특히,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은 가족 갈등의 주된 원인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남성의 관점에서 이들의 삶과 가족생활을 심층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제한적임.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의 관점에서 이들의 삶과 가족생활(가족관계 및 생활만족도, 은퇴 전/후 가족생활의 변화, 노년기 생활에 대한 전망 등)을 살펴보았음. 연구결과, 대부분의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들은 생애전환기적 사건인 ‘은퇴’를 둘러싸고 개인생활의 변화 및 가족관계에서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가족 내 ‘생계부양자’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들은 퇴직 및 은퇴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역할 없는 역할(roleless role)로 인한 정체성의 약화, 가족 내 지위와

*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최인희·홍승아·김주현·정다은(2014).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의 가족생활
현황과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역할의 변화 등을 경험하면서 부정적인 심리상태 및 삶의 질 저하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 수준이 높고, 배우자 및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을 경우 삶의 질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의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함.

1 배경 및 문제점

- 고령화의 진전 및 가족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노년기 생활이 부부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나,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혼인기간 20년 이상의 이혼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중장년 및 노년기 부부 간 만족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통계청, 2013).
- 한편, 장년기 및 노년기 부부의 낮은 관계 만족도, 가족갈등에 있어 ‘남성’은 대체로 갈등의 원인(cause)으로 규정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관점에서 이들의 삶과 가족생활에 초점을 둔 연구는 대단히 제한적으로 수행되었음. 특히, 남성은 중장년기 ‘은퇴’라는 큰 전환을 경험하면서 개인과 가족의 삶을 재편성해야 하는 과업을 맞이하게 되며, 생계부양자로서의 정체성 상실 등을 통해 ‘위기의 시기’(Philipson, 1998)를 경험할 수 있으므로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에게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의 가족생활 현황을 1) 현재 가족관계 및 생활만족도, 2) 은퇴 전/후 가족생활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중장년기 및 노년기 남성의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것임.

2 조사 및 분석결과

■ 연구방법

- 문헌연구, 2차 통계자료 분석, 설문조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이와 함께 전문가 자문회의를 시행하였음.
- 문헌연구: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의 가족생활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와 우리나라의 중장년기 남성의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을 검토하였음.
- 2차 통계자료 분석: 2010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통계 홈페이지, 2014), 제4차 고령화연구패널(한국고용정보원, 2013) 자료를 활용하여 남성들의 가족관계 현황 및 삶의 질을 분석하였음.
- 설문조사(n=700):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남성 700명을 대상으로 2014년 7월부터 8월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가구방문조사 형식으로 진행하였음.
- 심층면접(n=20):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남성 20명을 선정하여 진행하였으며, 연령, 은퇴상황(비은퇴, 부분 은퇴, 완전 은퇴), 노후준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음.
- 전문가 자문회의: 조사기획과 연구내용, 정책대안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관련 분야 학자와 정책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총 6회 개최하였음.

1 2차 자료 분석결과: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의 가족생활

1) 2010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분석결과

■ 생활현황 및 생활만족도: 성별차이

- 남성과 여성 모두 전반적으로 부부관계 만족도와 자녀관계 만족도가 보통(3점) 이상으로 나타남. 남성이 여성에 비해 부부관계 만족

도가 높은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자녀관계 만족도가 높았음.

- 전반적으로 자원봉사단체 및 정치사회단체 활동 참여도는 매우 저조하며, 특히 자원봉사단체 활동 참여가 더 저조함.
- 건강 및 목돈 마련 관련 저축은 여성이 남성보다 가입률이 높았고, 사망위험, 노후소득 관련 저축 및 민간보험과 공적연금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가입률이 높음. 공적연금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2배 이상 가입률이 높았음.
- 전체적인 생활만족도는 남녀 모두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음.

■ 생활현황 및 생활만족도: 남성 중고령자 세부 집단별 차이

- 연령이 낮고, 건강하고, 소득수준이 높고, 일을 하고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부부관계 및 자녀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더불어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사회단체 활동 참여가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소득수준이 높고, 은퇴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들에 비해 더 많은 친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함.
- 건강, 사망위험, 노후소득 관련 저축 및 민간보험은 젊을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계속 일하는 집단일수록, 부부가구, 부부+자녀가구의 남성이 1인 가구 남성에게 비해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목돈관련 및 민간보험 가입률의 경우에는 연령이 낮을수록, 건강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계속 일하고 있는 집단인 경우에 더 많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남성 중고령자 집단 중 젊고, 신체적, 경제적 자원이 양호한 상태일수록 노후준비 상황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역과 유사하게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적인

인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건강할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일을 계속 하고 있는 집단이 아닌 집단에 비해, 부부가구, 부부+자녀가구의 남성이 1인 가구 남성 에 비해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전체적인 생활만족도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일을 계속 하고 있는 집단이 아닌 집단에 비해, 부부가구, ‘부부+자녀가구’의 남성이 1인 가구 남성 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남성 중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중고령 남성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은 건강, 교육수준, 소득수준으로 나타남. 이와 함께, 부부관계 만족도, 자녀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노후준비가 잘되어 있을수록, 현재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일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고령 남성 은퇴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은 건강, 소득수준으로 나타남.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은퇴 후 생활만족도 변화가 긍정적일수록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제4차 고령화연구패널(2012) 분석 결과

■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¹⁾

- 전체 남성 집단 평균은 경제만족도 55.61점, 부부관계 만족도 68.66점, 자녀관계 만족도 68.89점, 전반적 삶의 질 60.82점으로 나타남.

1) 경제만족도, 부부관계 만족도, 자녀관계 만족도, 전반적 삶의 질에 대한 응답은 0점~100점(10점 단위)으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4개 만족도 모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무배우자가 유배우자에 비해(부부관계 만족도 제외), 사회적 관계망이 좁을수록, 건강수준이 나쁠수록, 은퇴자가 비은퇴자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은퇴여부에 따른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의 특성차이

- 혼인상태의 경우, 비은퇴자는 은퇴자에 비해 유배우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이는 연령대 분석과 연결되어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비은퇴자일 가능성이 높고, 배우자와 함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은퇴자와 비은퇴자의 사회적 관계망을 비교한 결과, 은퇴자 집단은 가장 친한 사람을 1주일에 1번 이상 만나는 비율이 60.8%, 1달에 1번 이상이 21.4%, 거의 만나지 않는다는 비율이 12.4%, 1년에 1번 이상 만난다는 비율이 5.4%순으로 나타남. 비은퇴자의 경우 1주일에 1번 이상 만난다는 비율이 60.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1달에 1번 이상(26.6%) 순이지만 1년에 1번 이상(7.9%), 거의 만나지 않는다는(4.6%)로 은퇴자 집단과는 상이한 순서를 보임.
- 은퇴자의 건강상태는 보통(42.3%), 나쁜편(29.1%), 좋은편(17.8%), 매우 나쁨(10.3%), 매우 좋음(0.5%)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은퇴자의 경우 좋은편(42.0%), 보통(39.8%), 나쁜편(13.9%), 매우 나쁨(1.6%) 순으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나 다른 속성들을 통제하지 않고 살펴본 차이분석이므로 이후 회귀분석을 통해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은퇴한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의 특성과 은퇴 후 생활만족도

-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좋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대(31.6%), 60대(42.1%), 70대(45.3%), 80대 이상(49.9%)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

한 비율(중졸 이하: 46.8%, 고졸 이하: 41.4%, 전문대 졸업 이상: 35.2%)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함.

- 배우자 유무별 은퇴 후 생활만족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카이제곱 분석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사회적 관계망이 약할수록,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생활만족도 변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각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의 전반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만족도, 부부관계 만족도, 자녀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 집단의 다양한 특성과 더불어, 생활여건 및 생활 상태의 조형으로 나타난 영역별 응답자의 주관적 만족도 평가가 학력, 배우자 유무 등의 객관적 특성보다 전반적 삶의 질 평가에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됨.
- 은퇴를 경험한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 집단의 전반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상태와 경제적 만족도, 부부관계 만족도, 자녀관계 만족도인 것으로 나타남.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각 영역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반적 삶의 질에 대한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로 살펴본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의 가족생활

-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본인이 평가한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좋다’는 응답이 93.6%로 나타남. 반면, 전체 응답자의 20.0%가 최근 2년간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우울 증세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은퇴 전/후로 겪게 되는 직업인으로서의 역할 상실 및 새로운 생활에의 적응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인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한편, 삶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자의 48.4%가 현재 생활이 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고, 건강상태, 여가활동, 주거상태, 가족관계 등 세부 영역에 대한 만족도도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음. 그러나, 경제적 상태의 경우에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31.4%로 다른 영역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었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 역시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는 점에서 노년기 소득보장을 위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확립 및 소득창출을 위한 일자리 확대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전체 응답자의 95.7%가 현재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혼인 기간은 28.55년으로 조사됨. 또한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량(49.4%)이 배우자가 현재 근로 및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자녀교육, 주택구입, 투자 및 재산관리, 생활비 지출, 배우자의 취업·직장이동 문제 등 가족과 관련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남편과 부인 중 누가 주된 의사결정권자인지를 조사한 결과, 주택구입, 재산관리 등 재산권과 관련된 일은 ‘부부가 함께’ 결정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자녀교육 및 생활비 지출은 주로 아내가 결정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았음.

● 부부간 가사노동 분담의 경우, 식사 준비 및 설거지, 세탁 및 집안 청소, 시장보기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응답자의 90% 이상이 주로 ‘부인’이 가사노동을 한다고 응답했음.

● 배우자와의 갈등경험 빈도는 ‘경제적 문제’가 76.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자녀문제’(64.3%), ‘생활방식’(64.0%) 순으로 조사됨.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가끔 또는 자주 고려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영역은 ‘가족의 경제적 문제’, ‘생활방식’, ‘자녀문제’ 순으로 나타남.

● 배우자와 함께 하는 여가활동 1순위는 ‘TV 시청’이 51.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등산, 산책 순으로 조사됨.

●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49.9%로 나타났고, 배우자가 응답자의 의견이나 기대를 존중해 주는 정도가 만족스럽다는 응답은 전체의 36.7%로 조사되었음.

- 유배우 응답자의 98.6%가 자녀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미혼자녀 수는 1.24명, 기혼자녀수는 .68명으로 조사됨. 한편 조사시점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자녀의 연령은 평균 25.93세였으며, 자녀의 취업상태는 ‘취업 중’이라는 응답이 48.6%, ‘재학 중’이라는 응답이 41.9%, ‘미취업’이라는 응답이 9.6%로 나타남.
- 지난 1년간 응답자가 미혼자녀에게 제공한 지원 유형은 ‘경제적 지원’이 66.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말벗, 이야기 상대’(51.8%), ‘고민상담’(42.3%)으로 나타남. 이러한 지원 중 응답자가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은 ‘경제적 지원’으로 나타났음. 한편, 기혼자녀에게 제공한 지원은 미혼자녀 지원보다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미혼자녀에 비해 손자녀 돌봄 등 돌봄을 제공한다는 응답률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응답자가 미혼자녀로부터 받은 지원은 ‘이야기 상대’ 등 정서적 지지가 가장 많았고(41.5%),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은 22.8%로 낮은 수준이었음. 반면, 기혼자녀로부터는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이 많아 전체 응답자의 65.4%가 기혼자녀로부터 생활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함.
- 기혼 응답자의 37.0%는 손자녀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손자녀 수는 2.47명이었음. 이 중 손자녀를 정기적으로 직접 돌본다는 응답은 5.5%, 비정기적으로 돌본다는 응답은 17.3%로 나타남.
-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내 건강이 악화되어 자녀에게 돌봄을 받게 될까봐’(39.1%)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내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까봐’(24.9%), ‘자녀가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까봐’(10.1%) 순으로 나타났음.
- 전체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현재 본인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다고 응답함. 부모님과의 동거율은 본인 부모님과 함께

산다는 응답이 9.2%, 배우자의 부모님과 함께 산다는 응답이 1.1%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음.

- 전체 응답자의 87.9%가 부모님께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응답은 많지 않았음. 또한, 배우자의 부모님께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의 63.7%였으며, 이 역시 응답자에게 부담이 되는 수준은 높지 않았음. 그러나, 이는 노부모 부양을 자녀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는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의 세대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부양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임.

- 전체 응답자의 86.1%는 ‘나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75.1%가 ‘나 자신보다 가족의 안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69.4%는 ‘나 자신의 관심보다 가족의 관심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에게 가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특히, 응답자의 상당수가 가족 내 본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생계부양’(63.9%)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한편, 전체 응답자의 37.7%만이 현재 가정에서 자신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음(보통: 53.3%, 불만족: 9.0%).

- 전체 응답자의 79.1%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60.1%가 ‘자녀에게 가장으로서 위엄을 가진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본인의 노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배우자’라는 응답이 89.6%로 압도적으로 높게 조사됨.

- 응답자가 지난 1년간 사적으로 가장 자주 만난 지인은 친구(50.3%), 직장 동료(26.9%), 지역주민(14.9%) 순으로 나타남. 또한, 전체 응답자의 90.6%가 현재 본인의 문제나 걱정거리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러한 친구의 수는 평균 2.24명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의 89.0%가 현재 여가/문화관련 모임을 포함한 친목모임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자원봉사 및 정당/시민단체/이익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은 각각 3.6%, 1.4%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음.
- 전체 응답자의 4/5 가량이 ‘일은 나의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 ‘일을 통해 나 자신이 성장한다’, ‘직업은 내 삶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응답하였음. 또한, 전체 응답자의 67% 가량은 ‘직업인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가족생활을 희생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반면 ‘일만 열심히 하면 인생이 공허해 질 것이다’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동의했으며, 37% 정도는 ‘가족부양만 아니라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음.
- 직장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가족생활과의 양립갈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1/3 정도만이 어려움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전체 응답자의 54.6%는 ‘은퇴 이후에 가족이 아닌 나를 위해 살고 싶다’고 응답하였고, 44.9%는 ‘남성에게 직장생활만큼 가족에게 충실하라고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요구’라 생각한다고 응답하였음.
- 비은퇴 응답자의 4/5 가량이 은퇴 이후의 생활을 위해 경제적 준비(87.1%)와 건강관리(79.7%)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배우자와 함께 은퇴 이후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는 응답은 3/5 가량으로 조사됨.
-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은퇴와 관련된 부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할 일이 없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65.2%)와 ‘직업인으로서의 지위를 잃는 것이 상실감으로 다가올 것’(64.8%), ‘가족 내에서 지위가 낮아졌다고 느낄 것’(60.0%)에 대한 우려가 높았음.
- 은퇴가 주는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영역은 ‘소득의 감소’, ‘심리적

위축감', '소비수준의 조정' 순으로 나타남.

- 비은퇴 응답자가 예측하는 은퇴에 대한 배우자의 반응은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배우자가 본인 은퇴에 대해 그동안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심정변화를 공감해 줄 것이라고 응답함.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배우자가 본인의 은퇴에 대해 정서적 지지를 해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한편, 절반 이상은 배우자가 다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원할 것이라고 응답함. 이와 함께,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자녀가 아버지의 은퇴로 인한 경제적 변화를 염려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 부분 은퇴 응답자의 경우, 생애 주된 직업으로부터 퇴직한 후 다른 일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17.9%만이 퇴직이 자발적인 선택이었다고 응답함. 생애 주 직업에서 퇴직했을 때 가족의 반응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량은 배우자가 본인의 그동안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심정변화를 이해해주었다고 응답함. 자녀들은 아버지의 은퇴로 인한 경제적 변화를 염려한 경우가 많았으며(44.5%), 자녀가 본인의 은퇴를 계기로 독립적이 되었다(36.9%)고 응답함.
- 배우자와의 관계는 '변화없다'는 응답이 53.4%로 가장 많았으나 '나빠졌다'는 응답도 33.3%로 적지 않았음. 자녀 및 부모와의 관계는 '변화없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음. 한편,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나빠졌다'가 21.7%였음.
- 전체 응답자의 75.8%는 완전 은퇴 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고, 69.6%는 '가족 내에서 지위가 낮아졌다고 느낄 것이다', 66.7%는 '할 일이 없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함.
- 부분 은퇴한 응답자의 77.8%가 은퇴를 대비하여 연금, 저축 등 경제적인 준비를 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 절반 이상이 은퇴계획을 배우자와 활발히 논의했다고 응답함.
- 은퇴가 주는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영역은 '소득의 감소', '소비수준

의 조정', '심리적 위축감' 순으로 나타남.

- 완전 은퇴한 응답자의 37.6%는 완전히 비경제활동 상태가 된 것이 '1년 이하'라고 응답하였고, 은퇴 이유는 '계속 일을 하고 싶었으나 어쩔 수 없이 그만 두게 되었다'가 72.9%로 나타남.
- 은퇴 이후의 생활을 위해 전체 응답자의 88.2%가 경제적 준비를 했으며, 75.9%가 건강관리를 했다고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배우자와 함께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고 응답함.
-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은퇴 시 배우자가 그동안의 수고를 인정하고, 본인의 은퇴로 인한 심경변화를 공감해 주었다고 응답하였고,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은퇴 시 배우자가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었다는 응답이 많았음. 응답자의 2/5 가량은 자녀들 역시 본인의 은퇴를 축하해주거나 은퇴한 아버지를 격려해주었다고 응답했음.
- 완전 은퇴한 남성들이 경험한 은퇴 후 생활변화는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55.7%)과 '직업인으로서의 지위 상실'(53.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는 '가족 내에서 지위가 낮아졌다'고 느낀다고 응답하였음.
- 은퇴가 주는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영역은 '소득의 감소', '심리적 위축감', '소비수준의 조정'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이 은퇴 후 퇴직에 따른 지위·역할 변화, 경제적 조건의 변화 등 생활 전반에 나타나는 변화를 수용하고, 퇴직에 따른 상실감,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스트레스가 회복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14.46개월로 조사됨.
- 상당수의 완전 은퇴한 응답자는 은퇴 후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와 가족관계가 '변화없다'고 응답하였지만 1/3 가량은 배우자와의 관계 및 전반적인 생활관계가 '나빠졌다'고 응답함.

■ 응답자들이 평가한 본인의 자아존중감 척도값 전체 평균은 27.89점으

로 ‘보통’ 수준이었음. 그러나 교육수준, 은퇴상황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나타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완전히 은퇴한 응답자가 경제활동 중인 응답자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았음.

- 전체 응답자의 1/3 이상이 미래에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담 증가 등을 경험하게 될까봐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함. 한편, 가장 불안감이 높은 영역은 ‘치매나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으로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조사됨.

- 현재 생활에서 가장 걱정되거나 고민의 되는 사항은 ‘나의 건강’(32.0%), ‘경제적 어려움’(13.4%), ‘배우자와의 관계’(10.0%) 순으로 조사됨.

-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들은 전반적으로 현재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경험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생활설계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있었으며, 노후설계서비스,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에 대해 이용의향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의 80% 이상이 ‘노후설계’, ‘은퇴설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상당수가 ‘재무설계’(66.6%), ‘여가설계’(48.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그러나, 실제 본인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응답은 영역별로 50% 미만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음.

-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후설계서비스와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도 각각 23.3%, 11.7%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서비스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서비스를 실제 이용해 보았다는 응답은 각각 16.0%, 20.7%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음. 한편, 향후 이용의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1%가 노후설계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2.4%가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현재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26.7%로 나타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터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 중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았다는 응답은 2.1%로 나타남. 한편, 향후 가족생활 만족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의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1/3 가량이 참여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프로그램 운영 희망 기관은 ‘주민센터’(36.4%), ‘종합사회복지관’(27.7%) 순으로 조사되었음.

■ 심층면접 조사 결과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의 삶은 은퇴에 대한 준비 정도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남. 준비된 은퇴집단에서는 은퇴 이후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으나, IMF나 2000년대의 고용불안 등 직업생활의 변동과 위기를 경험하거나 자녀지원 등의 이유로 은퇴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한 집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등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들의 삶의 변화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위기로 나타남. 본 면접에 참여한 남성들은 경제 불안기와 국민연금의 불안정 논란을 체험하면서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조기연금 수령, 혹은 불충분한 연금수급액으로 연금에 의존하여 생활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음. 조기퇴직을 한 경우에는 창업에 도전하였다가 실패한 사례들도 있었음. 이들은 모두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었지만 은퇴 후의 일자리는 단순 하위직으로만 내몰리는 경향이 있음.

● 면접에 참여한 남성들은 은퇴 후 시간과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사회적 단절감을 느끼고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불안과 우울증을 앓기도 함. 이러한 위기, 불안과 우울을 지나면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심리상태로 돌아오는데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여가 걸렸다고 응답함.

● 대부분의 남성들은 삶의 중심을 직장생활에 두었기 때문에 가족생활이나 자녀와의 관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했으며, 은퇴 후 배우자와 자녀들과 관계를 재조정해야 했음. 또한, 은퇴 후 생활이

가족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남성들은 이전에는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인지하지 못했던 일들(예: 집안일 등)로 배우자, 자녀와의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한 당혹감을 경험하게 됨. 또 이들은 자신이 ‘생계부양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을 택하지 못하고, 본인이 ‘참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경향이 나타났음.

- 배우자와는 감정적으로는 친밀하나 실제로는 종교생활이나 운동을 같이 하는 정도로 나타났으며, 또한 가사노동 참여도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가사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자녀와의 관계는 양면적인 특성이 나타남. 자녀의 교육비나 결혼비용 등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는 능력껏 혹은 능력 이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임. 또한 직장생활을 하는 기혼자녀를 위해 손자녀 돌봄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지원하는 사례들도 많았음. 반면 본인의 노후생활은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임.
- 노년기 삶에 대한 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점으로 건강과 배우자를 꼽음. 또한 은퇴 후 본인의 취미생활을 살리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등의 포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노년기 생활을 위한 지원욕구로 은퇴 상담 및 은퇴 설계, 일자리 지원, 가족교육이나 부모교육, 취미생활의 지원, 공간 지원 등을 제안함.

3 정책제언

제안1)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일·생활 균형 사회 구축

- ▣ 현재 우리나라의 중장년 및 노년기 세대 남성들은 ‘일 중심적’ 패러다임이 지배적인 산업의 1,2세대라는 세대적 특성을 가진 집단임. 이들

은 장시간 근로로 인해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지내며 가족생활과의 분리를 경험했고, 은퇴 후 가족생활의 재편을 어려운 과업으로 인식함. 또한 문화나 여가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세대였기 때문에 노년기 여가활동을 누리거나 사회참여 활동에 소극적임.

- 따라서 우리사회의 패러다임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제도 내실화를 통한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구축이 필요함. 또한 현재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일·가정양립 정책의 내실화 및 ‘일가양득’, ‘가족사랑의 날’ 등의 캠페인 확산 및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문화를 구축해야함.

제안2) 점진적 은퇴 지원 필요

- 점진적 은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충소득의 기능을 하며, 근로시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면서 직업만족도를 유지하고, 건강한 노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Stitzel, 1985; 방하남외, 2009에서 재인용). 가족생활의 측면에서도 은퇴 후 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가족생활의 측면에서도 점진적 은퇴 시스템의 구축은 중장년기 남성이 일 중심적인 생활에서 가족생활의 균형을 추구하고 은퇴 후 생활에 적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연구결과 상당수의 중장년기 남성들이 전일제 근로형태 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시간제 고용 등의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점진적 은퇴에 관한 근로자의 욕구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정년 후 시간제 고용 등 점진적 은퇴를 가능하게 하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퇴직제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현재 정부에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므로 추후 근무체계 개선, 직무 재설계 등을 통해 중장년기 남성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제안3)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당수의 중장년기 및 노년기 남성들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유급노동 활동 및 은퇴 후 노년기 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적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응답하였고, 노년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까봐 불안하다고 응답함. 또한, 상당수의 남성들은 공적 연금 수급 전에 은퇴를 경험하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연금 수급 전 은퇴한 남성들의 소득원 확보를 위한 중장년 남성 적합형 일자리 개발이 필요함.
- 현재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전직 및 창업 관련 지원 프로그램이 구축되고 있으나 여전히 일자리의 종류는 제한적이고, 단순직 위주로 개발되어 재취업의 적절한 대안이 되기에는 한계점이 있음. 따라서 이들의 직업경력을 살리면서 재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개발이 필요함.
- 재취업을 준비하면서 받게 되는 현행 교육훈련 프로그램 역시 단순 노무직 취업에 적절한 단기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변화하는 중장년 퇴직자의 역량을 고려한 다양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중장년 남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노동이력 및 전문성과 숙련도 등을 고려한 적합 직종 개발 및 수요처 발굴 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 이와 함께 현재 제공되는 상당수의 전직 지원 서비스가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병행되어야함.

제안4) 전문직 은퇴자를 위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 노년기 자원봉사의 긍정적 효과(예: 우울 감소, 자존감 향상, 사회통합감 향상 등)는 다양한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 있음(전용호·이금룡, 2013; 지은정,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의 자원봉사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상황임. 사회참여를 통해 본인의 정체성과 사회관계망을 유지하는 것은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의 심리적·신체적 건강유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김동배·신수민·정규형, 2012; 김수현, 2013)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참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현재 미국에서는 Encore Fellowships Network 프로그램을 통해 중장년층 퇴직자에게 지역사회 봉사기회를 연계하고 있으며(Encore.org 홈페이지, 2014),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민관협력 하에 전문직 은퇴자를 위한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 지도, 마을 만들기, 주민자치회를 통한 주민생활 지원 등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지역사회로 환원하는 방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일본의 경우, 전국 12만 여개의 노인클럽(senior citizens club)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중심 자원봉사활동(예: 독거노인, 요보호노인을 돌보는 가족지원 사업 등)을 활성화하고 있음(변루나·김영숙·현택수, 2011). 우리나라에서도 마을만들기 사업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의 역량을 활용하여 이들이 은퇴 후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제안5) 생애설계 서비스 강화

- 청, 장년기에 구체적으로 본인과 가족의 미래에 대해 설계하고 준비한

남성들은 노년기 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생애전환기적 사건(예: 결혼, 자녀출산, 퇴직 등)을 경험할 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및 생애설계 지원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제안6) 가족교육, 상담 프로그램 확대

- (남성대상 교육) 대부분의 남성들은 은퇴 후에도 가족 내 자신의 역할 및 정체성을 ‘생계부양자’로 강하게 유지하면서 갈등상황에 놓이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가족 내 남성의 역할이 다양하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가족생활에서 생계부양자 이외의 다른 역할(예: 돌봄자 등)로의 전이를 돕는 교육이 시행되어야 함.
- (배우자 관계) 적지 않은 수의 중장년기 남성이 현재 배우자와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욕구가 있다는 점에서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중장년 및 노년기 가족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배우자 관계) 이와 함께, 부부가 함께 하는 은퇴 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임. 이 교육에서는 배우자인 부인을 대상으로 은퇴한 남성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변화(우울감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부부간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습득하게 하여 중장년 및 노년기 부부가 경험하게 되는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할 수 있음.
- (배우자 관계) 배우자가 기능상태 저하 등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될 경우, 남성 자신이 주돌봄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이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감이 높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성인지적 관점에서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을 대상으로 돌봄 기술을 전수

함과 동시에 자가관리(self-care)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이 필요함.

- (자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있으나 상당수의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들은 자녀세대의 불안정한 일자리와 취업 지연 등으로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이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본인의 노후준비와 자녀에 대한 지원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본인의 노후를 위해 충분한 자원과 시간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또한, 부모와 자녀세대 간 지원을 요청하게 될 경우, 세대 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는 방식이 가족 갈등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세대별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제안6)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 정책 접근성 강화

- 연구결과,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들은 기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을 대상으로 현재 정부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장년 퇴직인력의 재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연금, 건강관련 정보,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가족생활 관련 프로그램,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타 부처에서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한 안내도 제공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을 위한 종합정보 플랫폼 구축을 제안함. 종합 정보 플랫폼은 온라인 형태의 정보사이트 운영을 통해 구

현할 수 있으며, 건강, 경제(일자리), 가족, 대인 관계, 여가생활 등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탑재하여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용이하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4 기대효과

-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의 가족생활 및 지원욕구에 대한 기초자료 생성 및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입방안 모색
-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사업 개선 및 새로운 정책 개발의 시사점 도출

참고자료



- 김동배·신수민·정규형(2012). 노년기 자원봉사참여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통합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7(3), 7-28.
- 김수현(2013).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가 신체적 건강, 우울, 사회적지지 및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3(1), 53-66.
- 방하남·강석훈·신동균·안종범·이정우·권문일(2009). 점진적 은퇴와 부분연금 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변루나·김영숙·현택수(2011). 베이비붐 세대 은퇴 후 사회참여 지원정책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보건사회연구, 31(4), 315-344.
- 전용호·이금룡(2013). 노인 자원봉사의 인정과 보상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62), 173-201.

- 지은정(2014). 활동적 노화의 관점에서 본 고령자 자원봉사지원 유형: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1(2), 269-296.
- 통계청(2013). 『한국의 사회동향 2012』 보도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통계 홈페이지(2014).
<http://hawelsis.kihasa.re.kr/micro/survey.jsp>
- 한국고용정보원(2013). 2012 고령화연구패널(KLoSA) 기초분석보고서. 한국 고용정보원.
- Encore.org 홈페이지(<http://www.encore.org/fellowships>) (검색일: 2014년 9월 1일)
- Philipson, C. (1998). The sociology of retirement. In J. Bond, P. Coleman, & S. Peace. (eds.), Ageing in society. London: Sage Books. (pp.180-199).
- Stitzel, M.(1985). Der gleitender Ubergang in den Ruhestand - eine Pensionierungsform der Zukunft? Mitteilung aus Arbeitsmarktund Beschäftigungspolitik, Hf. 1, 116-123.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관계부처 :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자원봉사),
사회통합지원과(지역사회 정보)